



NO.2157

하늘 마음



송경의 <하늘과 땅>



2024년 10월 6일
연중 제 27주일

입당송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권능 안에 있어,
당신 뜻을 거스를 자 없나이다.
당신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
당신은 만물의 주님이시옵니다.

제1독서 창세 2,18-24

화답송

- ◎ 주님은 한평생 모든 날에 복을 내리시리라.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네 손으로 벌어 네가 먹으리라,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
-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

-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
- 네 아들의 아들들을 보리라.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기를! ◎

제2독서 히브 2,9-11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리라. ◎

복음 마르 10,2-16

영성체송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으신 분.

복제란 무엇이며 우리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나요?

복제는 살아 있는 유기체, 곧 식물이나 동물 또는 인간을 똑같이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복제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실험실에서 배아를 나누는 방법입니다. 자연스럽게
일란성 쌍둥이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방식입니다.

둘째, 체세포 핵 이입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난세포의 핵을 복제되는 유기체(부모)의 세포
핵으로 대체하는 방법입니다.

일정한 처리를 하고 나면, 새로운 세포는 수정된 세포처럼 행동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성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1 생식 세포 복제



생식 세포 복제의 목적은 동물이나 인간의 복제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1996년에 체세포 핵 이입에 의한 복제로 복제 양 돌리가 탄생했습니다. 곧이어 다른 동물들도 복제됐습니다. 이 동물들은 종종 기형과 장애,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켰고, 보통은 성장을 완전히 하기 전에 죽었습니다. 이는 이런 유형의 과정이 걸보기처럼 쉽지 않음을 보여 줍니다. 체세포 핵 이입 후에, 복제된 배아는 대리모의 자궁에 이식되어 거기에서 태어날 때까지 계속 발달합니다. 지금까지 인간에 대한 생식 세포 복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많은 나라에서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치료 복제

치료 복제의 목적은 손상된 조직을 복원하거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도록 인간 세포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앞서 말한 방식으로 사람의 세포를 복제합니다. 인간 배아가 100여 개의 세포로 자라면, 그 줄기세포들을 빼냅니다. 이 과정에서 배아가 죽습니다. 이 줄기세포들은 환자에게 옮기거나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조직으로 자라도록 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3 하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동물 복제는 인간에게 도움이 되고 관련 동물들에게 불필요한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수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 복제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복제 인간은 온전한 인간이며, 온전한 인간으로 대우받아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수단으로 취급 받아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생식 세포 복제의 경우에는 인간의 성과 생식 간에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또한 복제가 특수한 유형이나 종족의 인간을 생산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위험도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교회는 모든 형태의 인간 복제를 거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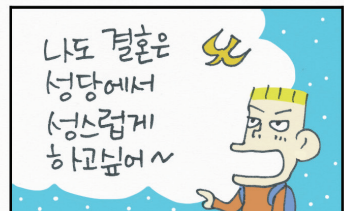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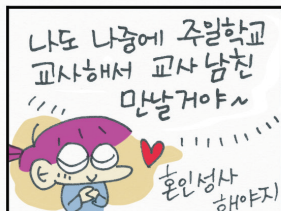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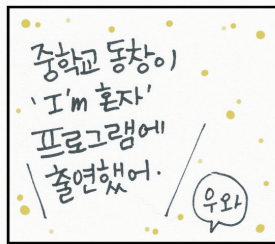
※ 이 글은 《하느님과 트윗을》(2016년, 가톨릭출판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날으는 CYA

엄현아 안젤라 | zzz-h@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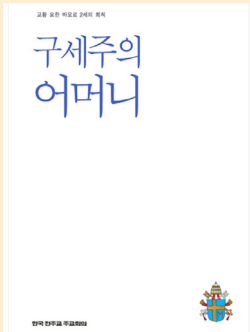
구세주의 어머니

Redemptoris Mater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전인걸 요한보스코 신부

C.Y.A 친구들 올해 여름의 더위는 유난히 더 뜨겁기도 했고 길었던 것 같아요. 이제 비로소 10월이 되어 가을 온도와 바람이 느껴져 몸과 마음이 좀 평온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좋은 계절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10월은 바로 성모님께 전구하며 기도하는 로사리오 성월이라는 것이예요. 오늘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주실 문헌은 바로 성모님 관련 회칙인 '구세주의 어머니'라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입니다.



출처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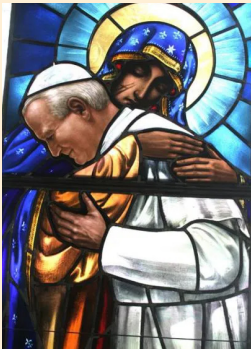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아홉 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를 하늘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모님을 자신의 어머니처럼 모시고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그리울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폴란드 남부지역 쳡스토호바(Czestochowa)에 모셔져 있는 성모님(Czarna Madonna)을 찾아가 위로를 받았다고 해요. 이처럼 성모님에 대한 교황님의 사랑이 극진했기 때문에 성모님에 관한 회칙을 반포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칙은 먼저 **성모님 삶의 원천이며 근거가 되는 그리스도의 신비**에서 시작합니다. 성모님이 가진 특별함은 바로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태중에 모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C.Y.A 친구들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해 큰일을 시작하신다고 하면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어요? 우리는 그저 지금 보통의 행복을 느끼며 사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만 그 알림에 움츠러들고 말 것이예요. 그런데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자유로운 의지로 예수님이 당신 태중에 오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십니다.(7-19항) 단순해보이지만 이 엄청난 일이 성모님을 통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지금 성당에서 예수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성체를 받아 모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느님 구원 계획에 대한 성모님의 동참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당신 삶의 모습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희망은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이곳 nk, 성당에 모인 모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당신의 모습으로 따라 살 것을 인도해주심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우리 C.Y.A 친구들이 성당에 나와 또래 친구들과 친교를 나눈다면, 그 친교는 성모님께서 사람을 대하듯 자애와 일치를 위한 사귀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27-24항)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성모님의 모습을 닮아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세속적인 욕구와 바람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마니피캇을 외치며 복음을 따라 사는 자유와 해방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35-37항)

마지막으로 회칙은 **성모님의 중재 역할**을 소개합니다. 중재라는 것은 양쪽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일을 조정하거나, 화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친구들 둘이서 의견이 맞지 않으면 누군가 나서서 중재역할을 하며 그 둘 사이를 화해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싸우지도 않았는데 어떤 중재가 필요할까요? 하느님께서도 세상 사람들을 선하게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벌어진 간격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중재자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럼 성모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성모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나오시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중재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신데, 성모님께서 인간의 일로서 중재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성모님의 중재에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느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42-47항)



플로리다의 한 주교좌 성당
주교님 관저에 있는 스테인
글라스(주제 : 요한바오로
2세에 대한 성모님의 사랑)

출처 Butac



첸스토호바의 검은 성모
출처 : 위키피디아

‘구세주의 어머니’ 회칙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모든 교우들에게 성모님의 신비에 동참하여 살라고 요청하는 문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동참해야 할까요? 그 모습이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바라는 가장 적합한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C.Y.A 친구들도 로사리오 성월에 묵주기도를 바치며, 성모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 삶에 동참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복음자리

2024년 10월 6일 | 연중 제27주일

(마르 10,2-16)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마르 10, 9)

새겨보기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들에게 하느님의 나라를 어린이와 같이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그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끔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미사 때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성변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가끔은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겪는 이유는 우리의 문화와 관습, 우리가 가진 지식의 틀에서만 하느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는 모든 물을 받아들이는 스폰지와 같이 하느님 나라를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각대로 하느님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처럼 있는 그대로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느님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어린이는 있는 그대로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입니다.

 **STEP 1.** 오늘 복음 내용이 뜻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STEP 2.** 내 삶을 오늘 복음에 비추어 생활 속 이야기를 써보아요.

 **STEP 3.** 주님께 바치는 나의 기도나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적어보아요.